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7+8
JUL + AUG
2022 vol.19



특집 세상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사람 사이 유명대 국민일보 기자

청년 시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청년이란

문화로 세상 보기 영상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기독교

ISSN 2671-8731



07

Contents

JULY + AUGUST · 2022

시선

맛 잃은 소금과 자라야 할 그루터기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세상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 | 신국원 04

특집

세상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세상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 김진양 06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 정병오 08

권력이 된 한국 교회는 세상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 | 박진규 10

혐오를 넘어 현대의 공동체로 | 김민아 12

‘안경’ 말고 ‘거울’이 필요하다 | 김상덕 14

모이다, 흩어지다 | 신호영 16

가나안을 선택했던 어떤 믿음 | 전해정 18

사람 사이

유영대 국민일보 기자 20

섬김의 자리에서

나에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란? | 김미영 24



2022. 7+8월호 | 제19호(통권 234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한 청년의 기대 홍원의	26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청년이란 신소라	28

청년일터이야기

일상 속의 '스토리'(Story) 문창훈	30
나의 신앙은 아직 성장 중 신예영	32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영상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기독교	
- '호모 데우스' 시대에 대안은? 추태화	34

미술을 보다

도시야경의 '네온 십자가', 이를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 서성록	36
--------------------------------------	----

책을 보다

기술에 대한 사랑과 반란 장수영	38
'이중직 목회자'라는 주변부로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을 추모하다 김반석	40
새롭게 '옴' 이진희	42
Dr. Yang is visionary 조성표	44

교회 路

죽전우리교회 '세아신부 세미나' 소개 박태호	46
소감문 : 문화 콘텐트 분별에 눈을 뜨다 이지영	47

은전한 지성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2)	
- 시대정신에 맞서다 신국원	48
양승훈 교수의 은퇴식	50

소식

독자 한마디	51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발행일 2022.8.1 발행인 손봉호 편집장 신국원 편집실무 석중준
 발행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910호
 전화번호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ISSN 2671-8731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집 02.521.147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맛 잃은 소금과 자라야 할 그루터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연말에 한국 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종교들에 대한 호감도에서 개신교는 100점 만점에 31.6점을 얻어 불교 50.4점, 천주교 50.7점에 비해서 크게 낮았다. 무종교인들은 개신교에 21.9점을 주어 불교 49.7점, 천주교 48.2점의 절반도 되지 못했고, 30%는 4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한국 교회는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맛 잃은 소금의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물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는 없고 항상 얻지도 못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할 수도 없다.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의 세계관과 다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쉽게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며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가 쉽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대와 지중해 지역의 초대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핍박과 비난을 받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핍박은 오히려 교회의 영

광이다.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최대 종교로 성장했고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경계와 질투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불신을 받게 된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거나 세상의 시기를 받아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정당한 기대를 한국 교회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마 5:16)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라고 말씀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에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불신을 받는 것에는 정당한 핑계가 많지 않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비록 교세는 약했지만 세상의 신임은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은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놀라워했다고 장거리 박사가 회고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법정에서 피고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변호사가 주장할 정도였다 한다. 1950년대까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성자들이어서 교인들의 존경과 세상의 신임을 받았다. 1988년에서 1992년까지 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신세호 박사는 자신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자기 자녀들은 교회에 보낸다 했다. 교회에 다녀야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고 그런 긍정적 평가가 한국 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룩한 성장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교인 수, 헌금 액수, 사회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 등이 커져서 한국 최대 종교로 부상하게 되자, 많은 자칭 교회지도자들이 부, 사치, 인정, 권력 같이 세속적인 것들에 맛을 들였고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교회 성장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 늘어나는 것이 목회 성공의 기준이 되었고,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신사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이 감행되고 교단장과 교계 단체장 선거에 부정이 저질러졌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전염병은 한국 교회에 치명상을 입혔다. 환자들을 돌보고 방역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대면 예배의 권리를 요구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기까지 했다. 대구 동산병원은 자진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본 결과 불교재단의 만해상까지 받은 것을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사회, 심지어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대부분은 아주 당연한 이 임무 수행을 게을리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불신과 무시만 받게 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비판하고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믿고 알아도 소용이 없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십자가의 도에 충실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 사도들, 성 프란시스, 장거리처럼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주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절제하고 조금이라도 덜 사치해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개신교가 한국 최대 종교라면 정직하고 공정해서 세계 최하 수준의 사회적 자본(167국 가운데 147위)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이념의 우상을 배격함으로써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이미 제대로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없지 않다. 이들 그루터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임도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섬기고 있다.

세상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참 따갑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선>과 <특집> 글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치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조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크게 성장했는데 그것이 지금 쓰러진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픈 비판을 외면하지 말고 냉철한 반성을 통해 회복의 길을 모색하기를 호소합니다.

지엔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님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이미지 포지셔닝 지도로 보여줍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기윤실의 정병오 대표님은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검소, 절제,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호소합니다. 박진규 교수님은 “개신교의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는 한 앵커의 말을 인용해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미디어의 바른 활용으로 세상의 가치와의 접점을 발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민아 교수님은 교회가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해결하기보다 강화해온 것이 ‘안티기독교’ 분위기가 급증한 원인이라 지적합니다. 이웃 사랑과 공공선을 위한 연

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상덕 박사님은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적 관점에 주력했지만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적 실천이 약했던 점을 문제의 근원으로 꼽습니다. 이젠 문화의 거울에 교회의 모습을 비춰 보고 독선을 버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사랑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동역회 사무국장으로 섬겼던 신호영 위원님은 많은 이들이 교회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과 삶이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정 자매는 자신이 가나안 성도가 된 아픈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를 잠시 떠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삶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목표로 삼는다고 했고요. 이런 성도가 기쁨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왜 없을까요?

<사람 사이> 인터뷰의 유영대 기자님은 시대 정신에 저항하기보다 동화되어 사회의 기대를 잃어버린 교회의 현실을 한탄합니다. 우선 양적 성장에 대한 환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느는데 신뢰도가 역주행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경건성의 능력을 회복해,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해

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미래 세대와 민족과 세계를 보는 비전의 제시를 요청합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우리 공동체의 드문 기업인 실행위원이신 김미영 한국소토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동역회를 섬기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도 동역자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고 보람으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 홍원의 형제는 〈청년 시론〉 첫 꼭지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청년들 중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는 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른들의 도움과 살림이 절실한데 별로 기대할 수 없다는 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신소라 자매는 지성도 영성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창훈 형제는 공직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야기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비전을 소개합니다. 신예영 자매는 외국계 회사 동료들의 전도를 소망하는데 상사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맞닥뜨려 느꼈던 바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의 추대화 교수님은 영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평가를 넘어설 길은 거기 비친 모습을 통해 반성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님은 도시 야경의 네온 십자가와 기독교 역사 속에 십자가가 어떻게 표현되어왔는지를 비교합니다. 십자가가 불품없는 키치가 되어 제재대상으로 거론된 현실을 개탄합니다. 교회를 표식으로 알리기 보다 소통과 섬김을 강화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길이 아닐까 제안합니다.

〈책을 보다〉에서 장수영 교수님은 자크 엘릴을 연구해온 이상민 박사님의 현대 문명의 어두운 면모를 파헤친 〈기술, 선전, 정치, 혁명〉을 소개합니다. 김반석 형제는 이중직 목회자 현상에 대한 김재완 형제의 인류학적 연구인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를 평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김기현 교수님의 묵상집인 〈옴 까닭을 묻다〉를 통한 신정론 논의를 소개합니다. 조성표 교수님은 양승훈 교수님의 평생 비전과 그 삶을 적은 〈비전에 인생을 신다〉에 그려진 경북대, 동역회, VIEW에서 아프리카로 이어진 사역을 조명합니다.

〈교회로〉에서는 박태호 강도사님이 죽전우리교회의 〈세아신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와 신앙 위에 세우려는 부모”를 위한 6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지영 자매는 이를 통해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고 문화 콘텐츠를 분별하는 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지성〉은 신칼뱅주의 지도자인 카이퍼가 어떻게 프랑크혁명의 인본주의 사상과 맞서 각성 운동을 이어갔는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양승훈 교수님의 은퇴식 소식을 전합니다. 무더위에 부담스러운 주제로 글을 써 주신 모든 분과 편집위원님들의 수고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세상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김진양 (지앤컴리서치 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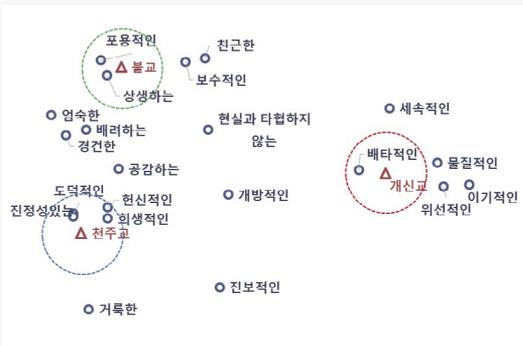
지난 4월 27일, 국민일보는 교계 단체인 '사립과섬김' 부설 코디연구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첫째,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8.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큰 충격이었다. 2021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서는 한국 교회 신뢰도가 20.9%였는데, 이것보다 더 감소했다는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특히 비개신교인 가운데는 8.8%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비개신교인은 거의 모두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신뢰도는 사회적 기관(교회도 사회적 기관이다)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국민의 80%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사회적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는가의 문제 이전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존재 기

반이 허물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흔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전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교회의 부정적 사례일 뿐이라고 자위하지만,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것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자기부터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정성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에게 21개 이미지 항목을 주고 각각에 가장 적합한 종교를 응답하게 한 후에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통계적 기법인 MCA(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상응 분석)를 했을 때, 개신교를 특징짓는 이미지로는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반면에 불교는 '포용, 상생'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개신교의 배타적 이미지와 대립하고 있다. 천주교의 이미지는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신

교 이미지와 정반대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와 불교 이미지를 종합하면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 이미지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는 사회의 그 어떤 기관보다 순수해야 하고 이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개신교가 이기적 욕망에 충실한 종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개신교는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는다.(아래 참고 : 개신교 이미지 포지셔닝 Map).



셋째,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어떤 종교보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러한 활동마저 진정성 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천주교의 사회봉사 활동이 진정성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9%였지만, 개신교는 그 절반 이하인 13.6%밖에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75.0%는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회봉사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교회는 전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모든 활동을 전도와 직접적으로 연결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탈종교 사회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지 않은 사회봉사 활동은 진정성을 얻지 못해서, 의도와 달리 오

히려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더 생기게 하고 전도에 더 방해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일보의 보도가 나간 후 반응은 '설마'와 '역시'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설마'는 기독교 이미지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고, '역시'는 교회가 놓인 현실을 잘 드러냈다고 하는 반응이다. '설마'의 반응은 교회에서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교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진양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회사 '지앤컴리서치' 부사장이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교직 생활이 30년이 훌쩍 넘다 보니 장성한 제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는다. 그 중 가끔씩 나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 교회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제가 선생님 생각해서 참고 있지만 너무 화가 나요.”라고 하소연을 하는 제자가 있다. 학창 시절 나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아직 교회에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다. 그런데 가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담임목사직 세습, 목회자 성범죄, 과도하게 특정 정파에 경도된 성도들,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는 혐오를 남발하는 성도들 등을 볼 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과 저들이 있는 교회에는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혼재돼 심히 괴롭다며 호소를 한다.

이 친구뿐 아니다. 직장의 동료들이나 초·중·고·대 동창들 중 나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들의 비판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지지난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과도하게 높여 그 이하로 팔지 말자는 담합을 할 때 그것을 주도한 분이

맨날 교회 나오라며 자기 교회 주보를 나눠주던 권사님이셨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물론 나도 속물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다들 바 없더구먼.” “내가 전세 사는 집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전세값이 1억, 2억 급등할 때 나는 우리 집 주인이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덜 올릴 줄 알았어. 웬걸? 약착같이 시세보다 더 올리더군. 씹쓸했어.” “교회는 입만 열면 사랑을 가르치면서 왜 큰 교회 목회자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월급이나 생활 수준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들의 사례는 끝이 없고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다.

이들의 비판의 핵심은 한 가지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청와대에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다주택자들

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고 명령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 강단에서 집 두 채 가진 자는 한 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며 이를 유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임대료와 전세값을 동결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교인들이 점차 큰 교회로 몰리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생활고에 몰리는 상황에서, 교회는 기껏 이중직 허용 문제를 논할 뿐 노회 차원에서 목회자 월급을 모아 노회 소속 목사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역시 들은 적이 없다.

이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그것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눅 3:11)라는 세례요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 19:21)라는 예수님의 애정 어린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씀, 내게 유리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말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를 뛰어넘어야 하는 말씀은 듣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한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라고 응수를 하고 있다. 즉, “너희가 주장하는 영생이 있고 너희가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유한한 물질주의를 뛰어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도 정말 영생이 있으면 좋겠고 그에 속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영생을 소유하였다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느낄 수가 없으니 제발 보여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주변에서 부동산 광풍과 극단적인 물질주의 가치관 가운데서도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다. 자신을 위해 최소한으로 소유하고 검소와 절제와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의 삶을 가르치고 함께 실천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 한국 교회를 완전히 버리지지는 않았고 이 적은 무리를 통해 일하심을 본다. 아마 한국 교회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만 한국 사회 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을 받지도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갈 6:7). **FAITH & LIFE**



✍ 글쓴이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이다. 공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기독교사들의 연합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길찾기 과정인 오디세이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주님의보배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권력이 된 한국 교회는 세상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2020년 8월 여덟 개의 개신교 언론사(CBS, CTS, CGN, Good TV, C채널,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교신문)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2차 대유행이 급격히 확산하던 시기였다. 감염병 통제를 둘러싼 ‘정부, 사회의 요구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묻는 문항에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4.5%였다. 전체 인구 열 중 일곱 이상이 한국 교회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대한 개신교인의 응답에선 차이가 크다. “잘하고 있다”가 53.3%, “잘못하고 있다”가 41.9%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조사 결과를 보도하던 YTN 변상욱 앵커는 이렇게 덧붙인다. “개신교의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개신교인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세속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세상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을 읽어내는 일에 얼마나 게으른지 새삼 깨닫는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그 입맛에 맞추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세속의 가치 혹은 세계관과 타협하거나 절충하기 위함도 아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세상의 환심을 사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분리, 단절해야 하거나 공격, 점령해야 할 대상 역시 아니다. 성서는 세상을 교회가 속하지 말아야 할 곳이면서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세상은 신앙의 가치로써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다. 분리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읽고’ ‘알아야’ 할 이유다.

미디어 연구자로서 나는 세상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를 읽는 데 미디어만큼 유용한 통로는 없다는 시각에서 관련 현상을 탐색한다. 종교라는 영역에 대한 미디어의 해석은 공공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해야 할 바람직한 위치를 규정하는 일련의 인식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평가는 세속사회의 운영원리인 세속성이 설정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기준 삼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기준에 부합할 때는 칭찬이, 그렇지 못할 때는 비판이 따라온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은 세속사회가 상정하는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실망의 표현이다. 본래 실망과 비판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비판은 역으로 ‘종교에 대한 세속사회의 기대’를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를 향해 비판적인 미디어에 대하여 마냥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

다. 오히려 그 비판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좀
좀히 분석함으로써 세속사회가 말하는 종교의 필요와
역할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세속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서로 만나는 접점을 발견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를 향한 미디어의 시선이 비판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 보도, 드라마,
영화, 온라인 담론 모두에서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그
렇지는 않았다. 1990년대 후반에 와서 시작된 현상이
다. 그 이전 미디어 비판의 주요 대상은 불교였다. 2000
년대 들어서며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본격화되
더니 '안티 기독교'라는 말까지 유통되었다. 이후 그 추
세는 더 강화되었고 지난 '코로나19' 국면은 그 회복에
대한 심각한 회의까지 불러왔다.

무엇이 이런 전환을 만들었을까? 쉽지 않은 설명이지
만, 나는 '권력'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언론인은 개신교를 하나의 권력으로 규정한다. 이것
이 명확해진 시점이 1990년대 후반이었다. 한국 사회
에서 개신교가 권력 친화적이며 나아가 스스로 주요
권력이 되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다. 권력에 대
한 비판과 감시를 고유의 직업적 소명으로 인식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이런 인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동
한다.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위
치함으로써, 종교를 향한 세속사회의 기대와 충돌하
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디어에 투영된 기대를 살펴보
면 종교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뚜렷
하다. 세속사회가 종교에 부여한 중요한 역할이다. 힘
의 논리와 이기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사회에서 약

자의 편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도 종
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한다. 그 흐름을 거스
를 수 있는 사회제도는 종교뿐임에 대한 인정이다. 그
런데 권력이란 근원적으로 약자의 편이 되기 어렵다.
자기 중심성을 토대로 쌓은 힘이기 때문이다. 약자의
편은 타자 중심적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세상이 교회
를 권력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들의 눈에 개신교는 자
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단이며, 또 이를 관철하
는 힘까지 지녔다고 본다는 뜻이다. 결국 권력의 자리
에 선 한국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없
다는 말이다.

갈수록 하락하는 신뢰 속에서 개신교가 권력의 자리
에 있다는 건 모순처럼 들린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한
국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개신교는 명백히 권력이었다.
팬데믹 국면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차별금지법 논의
에서도 미디어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는 항상 권력 행
사의 주체로 인식된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갱신과 신
뢰 회복은 스스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 있음을 확인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미디어
를 통해 읽어야 할 한국 교회의 현주소다. **FAITH & LIFE**



✍ 글쓴이 박진규

서울여자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이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콜
로라도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
위원,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혐오를 넘어 환대의 공동체로

김민아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중점 교수, 종교학자)

한국의 집단 간 갈등과 혐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6월 영국 킹스컬리지(King's College)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의 결과보고서 <전 세계의 문화 전쟁: 갈등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 수준>(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에 따르면, 28개국 중 한국은 응답자 중 70%가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지지 정당에 따른 갈등이 있다는 진술에는 91%,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에는 91%, 세대 간 갈등에는 80%, 종교 갈등에는 78%, 성별 갈등에는 80%가 응답하는 등 12개 갈등 항목 가운데 빈부격차, 지지 정당, 세대, 성별, 종교, 교육 수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 외 부문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계층, 세대, 성별, 이념 간 갈등과 혐오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외와 차별과 배제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분노감이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혐오의 주체인 한국 교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편에 서 있는 것 같다. 2018년 여름, 제주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도착했을 때 한국 개신교는 이슬람 혐오 정서를 주도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개신교 정당은 반공, 반동성애, 반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 등

을 핵심 구호로 제시하였다. 특히 교회의 은행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 제정을 제안한 것에서는 개신교의 제도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이진구 2020). 최근에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으로 떠올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들에게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물리력을 동원하여 쿼어 퍼레이드를 저지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부 교회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집단반발의 온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공공 보건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출판된 <혐오와 한국 교회>(2020)는 한국 개신교회가 혐오하는 대상이 공산주의, 북한, 좌파,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슬람,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개신교회의 이와 같은 '혐오' 정서는 1990년대 들어서 양적 성장의 둔화라는 위기 상황에 맞닥뜨린 한국 개신교회가 2000년대 이후 동성애자, 난민, 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소위 '문화 전쟁'의 프레임으로 짜서 개신교 신앙의 영역 안에서 중요한 의제로 제기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제주 4.3 학살을 시작으로 증오 또는 혐오가 한국 개신교를 성장시킨 동력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개신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그 자체의 가치로 구현하기

보다는 타자로 규정하는 대상을 악마화함으로써 자신들 존재 의미를 정당화해왔다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갈등의 양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혐오의 대상인 한국 교회

개신교회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사건이 터지면서 소위 '개독교'라는 개신교 혐오적 표현이 급증하였고, 여기에 더해 유명 목회자의 성폭력과 재정 부패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한국에서 '안티 개신교' 분위기가 급증했다. 한국에서 개신교는 갈등을 만들고 사회의 개혁을 저지하는 이미지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급락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일부 교회나 목회자가 대면 모임을 강행하여 공공 보건에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여 여러 사회 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인·의료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각각 +75와 +72를 얻은 반면 종교기관은 -46으로 크게 떨어졌다.¹ 2021년 장로회신학대학교가 발표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85%가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라고 응답했다.² 한국 교회가 다른 사회집단들을 향해 보여줬던 혐오가 부메랑이 되어 이제 한국 개신교회로 되돌아오고 있다.

1 천관율,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시사IN>, 2020, 663.

2 최승현, "교회보다 낮은 한국 교회 신뢰도". <뉴스앤조이>, 2021년 4월 26일.

혐오를 넘어 현대의 공동체로

흔히 개신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개신교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봤을 때 개신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항상 실패해온 것처럼 보인다. 종교의 이상적 가르침을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노력의 포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일부 개신교인들의 혐오 발언이나 갈등 유발 때문에 전체 한국 개신교가 피해를 입는다고 불평만 하는 것도 패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주위 개신교인들의 혐오에 침묵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를 용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강화한다. 한국 교회가 혐오와 배제를 넘어 사랑과 현대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부 개신교회의 혐오 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공공선을 위해 동료 시민과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 안의 개혁과 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교회를 향한 혐오는 이미 사회적 현상이며, 이는 사회에 대한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한국 교회의 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민아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중점 교수로 재직 중인 종교학자이다.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1987년 민주화 전후 시기 한국 개신교의 사회운동 변화 양상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지지그룹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안경’ 말고 ‘거울’이 필요하다

김상덕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나는 이 글에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의 ‘안경’에 대해서는 유독 강조하지만,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울’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문제 의식을 나누고자 한다. 사실 한국 교회는 사회참여와 책임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함께 근대 지성의 세례를 받고 조선 반도에 도착했다. 그들은 성경만 가르치지 않았으며 다양한 사회 선교의 역할을 수행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고, 당대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난한 자를 위한 의료 및 봉사 등의 사회 선교를 함께 수행했다.

윌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교회는 ‘세계 형성적’ 역할을 강조하고 수행해왔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변혁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런 배경을 공유한다. 따라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을 고민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적 관점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적 실천이 요구된다. 문제는 기독교의 도덕적 담론과 실천이 예전 같지 않거나 심지어 더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길만이 잃어버린 공공성 회복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적인 담론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개인 및 타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서 (미국식) 공동체주의를 논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 더구나 한국 교회의 다수는 현실에 기반한 변혁적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성과 속을 쉽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태도가 강하다.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안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은 한국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오류를 보였기에, 그 대안으로서 자아 성찰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열린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 ‘안경’ 모티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주문했다(롬 12:2). 이를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하다. 이 안경은 성서에 기반하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기독교적 관점의 해석과 실천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세계관 운동은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위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맹목적 신앙을 경계하고 이성과 합리성을 존중하여 다양한 학문과의 대화와 공론장에서의 성숙한 참여의 길을 안내한다. 또한 ‘현실 도피 수단으로서 종교’라는 오명을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야 하는 사

회적 책임을 기독교 신앙의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광장 속 한국 교회는 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 ‘기독교적인 것’과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나누고, 사이에 경계를 긋거나 벽을 세우는 것 같은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대상을 향해 열린 자세로 이해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발언을 교인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내뱉곤 하는데, 이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그런 발언은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질 않으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집체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국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작은 현상일 뿐이다. 독선적이거나 차별적인 태도는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도 덕적 우위를 갖고 있던 시기에도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지나, “너나 잘하세요.” 또는 “믿고 거르는 개독교”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기독교가 사회적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자신만의 안경을 내려놓고 거울을 집어들어야 할 때이다. 즉, 한국 교회는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목소리와 필요와 고민에 대해 듣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대답하려고 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의 안경이 더러워진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의 시력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때이다. 공적 영역 속에서 ‘기독교적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물음이 요구된다. 어쩌면 우리가 쓴 안경이 이미 왜곡되거나 편향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안경 대신 거울을 든다는 것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문화란 단지 정복할 대상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 교회는 자신을 성찰하고 복음을 위해 오히려 자기를 비우며 세상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구제와 봉사에 앞장선 단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불신과 실망은 어디서부터 비롯할까? 이 질문은 세상에 비친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안경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돌아보기를 소홀히 했다. 세상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이 말은 기독교가 사회적 요구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대응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상호 형성적 역할을 수행한다. 세상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목소리만을 고집하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거울이 필요하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명지대학교와 성결대학교 등에서 출강 중이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와 실천신학 전공으로 철학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공공신학, 평화학, 미디어연구 등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갈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회의 공적 역할과 창조적 실천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모이다, 흠어지다

신호영 (독립연구자)



십여 년 전 유튜브에서 “Run!”을 외치는 설교 영상이 유명했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렸다. 지금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 지난 십여 년간 기독교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마음 한편이 무겁다. 우리의 신앙적 질문은 무엇일까?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오랜 친구는 늘 나에게 물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니?” 그리고 지극하신 한 선교사님은 만나는 청년들에게 꼭 묻는다. “너의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니?”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 지극지극하게 묻던 이 질문의 응답은 현재 기독교에 대한 평판의 답이다.

우리는 어떤 신앙적 질문을 풀고 사는가?

우리 삶이 너무 암담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예언자적 소명이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은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라 불리는 영역이다.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그

리스도인들을 종종 본다. 자신의 신앙을 말로만 하지 않고 이웃과의 화평하게 하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 바동거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지역에 보탬이 되고픈 교회와 단체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본다. 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교회적인 것’에 둘러싸여 산다. 그리스도인만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언어도 게토(ghetto)화되었다. 대학원 수업에서 발제하는 중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같은 호칭을 쓴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다.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완전한 진리>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이중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책만 그렇게 읽었던 거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 나를, 나의 삶을 더 반추할 수 있었다. 어쩌다 대구의 기독교 역사 길을 걷게 된 적이 있다.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역사관을 둘러보는데 문득 인터뷰 대상으로 만났었던 마이클 고헨(Michael W. Goheen)의 한 마디가 떠올랐다. “지금의 일이 100년 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의 안목이 좀 더 깊고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시대는 참 빨리도 변한다. 최근 내가 연구했던 주제는 ‘1인 가구’였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두되지 않던 이슈는 지금은 보편적이다. 특히나 ‘코로나19’를 겪으며 1인 가구로서의 애로사항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저 1인 가구에 20~30대만 떠올린다면 지금 한국 사회를 보는 안목을 더 넓혀야 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시대의 변화는 빠르고 우리의 안목과 지각이 넓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제임스 올타이스(James Olthuis)가 말한 것처럼 변치 않는 복음을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현장으로, 삶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교회도 좋은 일을 한다. 이롭게도 아직도 교회의 좋은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목회자 그룹이다. 우려되는 점은 좋은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좋은지 증명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기독교 이미지가 생긴 데에는 불통과 불투명함이 한몫했다고 본다.

안타까운 것은 주위 친구이자 목회자인 이들을 보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같은 목회자 그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도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어야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경험에서 어떤 고민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우리의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복음을 전하고

픈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드라마로 경험하고 있다면, 집 밖으로 나와서 미디어를 벗어나 진하고 깊은 관계 속에 사람과 삶을 포용하기 바란다.

세계관은 무엇일까? 나는 십 년의 공부 속에서 내가 내린 정의는 포용이다. 상대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를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까. 물론 세상은 참으로 악하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승님에게서 배운 많은 것 중 하나는 내가 서 있는 곳에 두 팔을 뻗어 내가 뻗은 그 팔 영역 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길 애쓰는 것이다. 그런 삶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이렇게 살수도 있구나”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란다. 100년 뒤, 그렇게 살아낸 우리의 작은 이야기와 삶들이 회자되기를 소망한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한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삶,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나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FAITH & LIFE**



✍ 글쓴이 신효영

(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 (주)공공디자인이즘 협력연구원이자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총신대에서 기독교 문화를 공부했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장 및 (재)사회투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가나안을 선택했던 어떤 믿음

전해정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직원 / 가나안 성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나보다 먼저 교회를 떠난 이들과 지금도 교회를 떠나길 선택하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보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개인으로서 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곤 하는지 나 자신이 교회를 떠났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나눠 보고 싶다.(소개하는 내용은 개인의 경험에 기초해 있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의 객관적 해석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교회를 떠났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 상황과 고민이 얽혀진 결과여서 선블리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다. 그래도 신앙의 홀로서기를 시작했던 즈음의 감정을 떠올려보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것이 개인의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꼽아보자면, 1) 자정작용이 부재한 교회 제도에 대한 회의감 2) 소통의 부재와 교단에 대한 문제의식 3) 교회가 주장하는 정치적 입장과 목회자의 영향력에 대해 들었던 의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자정작용의 부재한 교회의 모습은 내게 교회라는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주었다. 일간신문의 사회면에서 조망되는 돈 문제, 세습 문제, 성범죄와 같은 이야기는 “왜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자정을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안겼다. 성범죄 목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받아도 교회법에선 처벌규정조차 없으며 여전히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때 느꼈던 절망감은 교회란 제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흥미롭게도 이런 고민을 하던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는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던 돈 문제, 세습 문제, 성 문제 등과 같은 도덕적 문제에서 깨끗하고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건강한

교회였다. 모순적이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었다. 건강한 교회라는 좋은 환경은 마치 온실 속 같이 느껴졌고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기 어려웠다.

내심 한편으로는 그 온실 속이 좋아서 머무르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찰나 내가 다니던 교회의 교단은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의 큰 불편으로 다가왔다. 기존의 고민은 우리 교회 외부의 문제였다면 교단의 문제는 어느 정도 내부의 문제였다. 우리 교회에도 여성 목사는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외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물론 내가 느끼는 문제들을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모인 내게 소중한 공간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건 싫었기에 가만히 있길 선택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2020년 즈음부터 한국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해왔는데, 이는 목회자가 설교에서 관련 이슈를 동성애와 엮어 자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물론 성도들을 외부 집회에 동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은 비단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비포용적인 모습 뿐이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설교의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을 논하는 것은 마치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있어 목회자가 주장하는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영적 권위와 영향력의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

꼈다. 나는 그 영향을 받기 싫었고 그 가운데서 이젠 내가 배우고 깨달아왔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내가 앞서 교회에 대해 고민하던 문제들과 맞물려 교회를 떠나게 하는 촉발 원인이 되었다.

교회를 떠난 후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단연코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굳이 덧붙이진 않았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과 유익에 대한 따스한 기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이어가는 이 시간이 길게 지속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가나안 생활은 내가 꿈꾸는 교회를 찾아가는 과정 중이라고 보고 싶다. 그런 나의 가나안 생활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는 자산으로 남겨지길 기대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전해정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직원이다. 현재는 가나안 성도이지만 삶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라큐스에서 국제관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세상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유영대 국민일보기자

최근 국민일보와 '사권과섬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일보 2022년 4월 27일 자 특집기사 '추락하는 한국 교회 부활의 길은'에서 확인되듯이,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한국 사회에서 날로 실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중앙종합일간지 종교국 기자로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중견 언론인 유영대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세상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시 & 장소

2022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송실대학교 형남공학관 회의실

인터뷰어

윤현준 (송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정리 & 사진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윤현준 기자님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영대 저는 현재 국민일보 종교국 기획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난 25년 동안 주로 종교국 기자로 근무해 왔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공부했고, 현재 고려대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전공 : 과학언론학)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정회원, 한국언론법학회 정회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자문위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이며, (사)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홍보대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윤현준 기자로서, 한국 사회 속의 한국 교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하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유영대 2000년대 초부터 '여성성도 교회 내 차별 문제'를 주목하고 취재해 기사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대 장벽 중 하나였던 '여성 목사 안수' 등 교계 성차별 문제를 꾸준히 쟁점화했습니다. 현재 다수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가능하게 됐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탠 것입니다. 저의 취재와 기사가 얼마나 실질적인 힘이 되었을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현재까지 2005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2013년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여러 교단에서 여

성 목사 안수 안전이 통과됐습니다. 반대하는 교단도 여전히 있지만, 필요성 등 내부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여성의 직분이 한정되어 있고, 여성에게 안수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요.(골 3:18, 고전 11:3, 고전 11:9, 딤후 2:11, 창 3:16). 물론, 반대 이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여성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사와 선지자로 쓰셨으며, 실제 여성의 특성을 살린 재활복지 및 탁아, 노인복지, 구제 등 특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일반 목회에서도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에 교회 내 성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윤현준 **기자의 시각에서 우리 시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혹은 한국 교회의 위상은 한 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유영대 우리 시대 한국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 불신이 큼니다. 한마디로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불우 이웃을 돕는 등의 선을 많이 행하더라도 생색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권위는 실추되고요. 그래서 저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실질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극적으로 위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미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도 확인되듯이 의미 있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칼뱅주의자들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라는 멋진 표어가 있는데요.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신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곧 저항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요? 그런데 시대의 부조리와 부정직에 저항하기보다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거의 사라진 시대가 아닌지,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현준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지난 4월 27일 국민일보의 특집기사 '추락하는 한국 교회 부활의 길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감도가 천주교 65%, 불교 66%인데, 기독교 25%라는 대목도 있었지요. 기자님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영대 결과가 생각보다 더 처절하게 나왔던 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첫째 '코로나19' 정국에서 조사가 진행된 측면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신천지 등을 이단으로 구분하지만, 일반인의 시각은 그러한 구별이 없지요. 다 같은 기독교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는 매스 미디어가 '코로나19' 시기에 교회발 확진자 뉴스가 터질 때마다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도 영향이 있겠지요. 셋째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타 종교권 외국인이나 난민 등에 대해 다소 서툴게 대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서툰 대응이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 등과 겹쳐 일반인 시각에서는 한국 교회가 성(性)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상대적으로 덜 존중하는 듯한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의 격렬한 반응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만 위의 조사 결과를 모두 해명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결과에 대한 의문도 없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윤현준 **같은 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20년에는**



31.8%였다가 2021년에는 20.9%, 2022년에는 18.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상황이 더 악화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영대 : 저는 종교국 기자로서 오랜 시간 한국 교회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까이 접하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목회자 또는 교회의 재정 집행의 불투명성에서 야기된 빈번한 횡령 등의 재정비리 문제입니다. 둘째, 집사, 장로 등 직분을 받을 때 불거져 나오는 특별 헌금과 연동된 실질적인 교회 직분의 매매 문제. 셋째, 신문 광고란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교회 매매에 연관된 교인 숫자 부풀리기,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문제. 넷째, 담임 목회자 자리, 부흥회, 집회 등 강단 교류를 명분 삼아 실제로 이뤄지는 상호 물질 거래 등. 이러한 세속적인 이야기에 대해 한국 교회의 많은 분이 낯설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실제 수많은 제보와 취재를 통해 안타깝게도 생생한 사례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구제와 봉사, 사회복지 등에서 많은 좋은 일을 감당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어두운 면이 분명 존

재하고, 어쩌면 그 크기가 생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윤현준 기자님은 세상 속에 비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목회자와 일반 대중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과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유영대 지난 4월 27일 국민일보 기사가 나간 후 신문사에는 그 내용의 부정적 반향을 우려하시는 여러 목사님의 항의성 전화가 왔습니다. 반면에 캠퍼스 등 세간에서 들려오는 젊은 세대의 소리는 “국민일보 아직 살아있네”라는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겠지요. 제가 여기서 어떤 반응이 정당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목회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 위기를 진단하고 चे카하는 데서 나타나는 차이와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어렵더라도 중요한 대안은 한국 교회 내의 세대 간 소통, 목회자와 일반 성도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거 조사 방법이 제대로 된 건가, 뭔가 왜곡이 있을 거야”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지만 내용은 우리가 평소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비슷하네”라고 합니다. 소통은 특별히 목회자들께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일반 성도와 젊은 세대는 소통이 안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면, 억지로 남기보다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현준 기자님은 현재 한국 교회가 세상 속의 건강한 영향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영대 한국 교회가 우선 양적 성장에 대한 환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우리나라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는 967만 명(19.7%)이고, 이는 2005년 844만 명(18.6%)에 비교해서 약 123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국민일보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개신교 교단의 세계 최대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다는 등 숫자 놀음의 환상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닌가요?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성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요즘은 성경책을 끼고 다니시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못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긍심을 잃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핵심에 한마디로 교회의 세속주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일은 교회에도 브로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나 교계에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심지어 소정의 리베이트가 오갑니다. 중간 역할을 하며 돈을 받는 브로커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이지요. 하나 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와 성도 구분 없이 조심스럽지 못한 언행이 단초가 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사업체,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세속주의 문제입니다.

윤현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영대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향한 비방의 댓글은 우



려 수준을 넘어 심각합니다. 이런 비방 때문인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방안이 무엇인지 시급히 성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 젊은층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다니듯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방안이 필요한데요. 즉,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다시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 우리 시대 젊은 세대의 현실적 목마름과 허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특히 내 교회, 내 청년, 내 교인만을 위한 교회라는 생각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가까운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운용하며 활성화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는 한국 교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다음 세대 없는 한국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나에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란?

김미영 (한국소토 대표, 실행위원)

무더운 여름날 무심코 거실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은 높고 푸르며 청명하기가 그지없다. 저 멀리 보이는 대모산자락의 길푸른 산록 또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눈부시다. 사방 어느 곳을 쳐다보아도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아기자기함은 살아있음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낀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베푸신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제 것일 수 없는 인생을 살며 누리고 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겨울, 아버지의 고교 후배이셨던 목사님의 초청으로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혼재한 가문에서 자랐다. 당시 미션스쿨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기독교가 그리 생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나간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신자가 되었다. 또한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간증과 삶의 기록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그려보며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2012년 출석하던 '새로운 교회'(한홍 담임목사) 안수집사로 임직하면서 함께 동역하던 중앙대 김승욱 교수님을 통해 합류하였다. 2013년부터 실행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동역회를 섬기게 되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쌓였다. 동역회를 처음 만났던 때는 내가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고 있었던 시기다. 섬기

고 있던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러 좋은 성경 공부와 선교, 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활발히 실행하고 있었다. 덕분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았던 시기였다. 그 이전에 잠시 지방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모 선교단체의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매진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내었던 기억이 있다. 돌이켜 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러한 신앙 배경 위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과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자부심이었고, 그 속에서 함께 무엇인가 역동적인 사역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도 가득했던 것 같다. 특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는 훌륭한 교수님과 회원들이 많이 계신다. 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과 교회의 사역들과 연계하시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을까 하는 설레는 기대감도 있었다. 또한 당시 동역회에는 기업가나 정치인, 사회사업가들은 별로 없었기에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많이 참여케 하면 더욱 좋은 기회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한 사람들의 영입에 힘을 보태고도 싶었다. 그동안 동역회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과 기준을 제시해주는 훌륭

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고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하며 기도해 왔다.

그러던 중 “인생은 늘 잔잔한 바다와 같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시기를 만났다. 내가 투자했던 동생 병원에 여러 가지 법률적, 재정적,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내가 운영하던 회사와 가정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쓰나미와 도미노처럼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줄곧 리더와 멘토로 섬기는 살아오던 차였기에 담대한 내 성격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많은 영역을 동시에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끄럽게도 예수님조차 목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온통 캄캄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때도 내 곁을 묵묵히 같이 지켜주고 함께 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그 지체들이었다. 당시 손봉호 이사장님, 신국원 교수님, 박동열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동역자 분들의 삶의 모습은 내게 큰 위안과 도전을 주었고 그래서 계속 지탱할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그 삶의 과정이 어디에 와 있든 절망치 않고 살아내고 이겨내도록 세워주고 지켜주는 약속의 땅이기도 했다는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 우리 동역회에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성숙한 사고와 행동으로 대처하시는 동역회의 입장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동시에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동역회 동지들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고, 개인적으로 직면한 여러 어려움도 뚫

고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내가 동역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동역회가 나를 살리고 섬겨주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나는 제조업 사업과 함께 건축업자의 일을 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위에 펼치기 위해 또 하나의 유용한 일터를 더하여 주셨다. 나는 이 확장된 일터에서도 우리 동역회와 더불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새로운 교육기관과 시스템을 세우고 사람들의 터전을 평화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또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한걸음 힘을 합하는 그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는 사역에 미약하나마 힘을 계속 보태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이사야 43:2). **FAITH & LIFE**



글쓴이 김미영

공기살균청정의료기 제조업체인 (주)한국소도 대표이다. (주)사람과삶 대표로 국내외 도시개발 사업 및 SOC, BOA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교회에서 청년들 멘토와 안수집사로 섬겼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재정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한 청년의 기대

홍원의 (서울대 동물생명공학부 4학년, 서기연 대표)

“교회 밖의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본다.” 이 말은 우선 각자가 그리스도의 혼적들, 선행, 덕, 성품 등 하나님을 떠올릴만한 어떤 것들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들이 교회 밖 친구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교회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 때,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느낀다는 것을 느낀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어 할 때,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느낀다는 것을 느낀다. 그때 우리는 각자 속한 교회에 굳이 친구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 큰 반감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경험한 바로는 한국 교회를 많이 싫어하는 청년들은 과거 교회를 다녔거나 현재도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언젠가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낙담했고 실망했고 지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캠퍼스에서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 또 캠퍼스에서 여러 기회에 교회를 떠난 후배,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

다. 그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교회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갈망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든 가서 다시 영적으로 ‘아사’(餓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두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나의 좁은 경험과 식견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캠퍼스에서 만났던 상처 입은 청년들로 인해서,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물어버릴 수 없다.

또한 나는 가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차라리 숨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미 실망감과 상처를 주었던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소개된들, 계속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들의 교회가 숨겨져 있다면 그 이미지가 그나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물론 나의 본심은 여전히 우리 시대 많은 청년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과 같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청년들이 ‘확신’을 가지고 소속된 교회를 선물과 같이 자발적으로 자랑하게 되지 않는 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의 부흥과 부활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청년들이 현재 이렇게 내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고 싶을 만한 기쁜 곳으로 ‘확신’을 갖



기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복잡다단한 차원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을 것이다. 어떤 지역 교회의 어른들과 청년들의 분열, 지도자(직분자)의 타락, 세례의 권위 축소, 목회자에게 과하게 집중된 권위로 야기된 문제 등등이다. 이 문제들은 한국 교회에서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논해졌고, 또 그러한 논의는 어떤 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많은 경우 기성세대와 목회자들의 실수와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지는 듯하다. 대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던 문제들이다. 많은 경우 해결책은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들인 교회 어른들, 외람되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먼저 문제 의식을 스스로 느끼고 풀어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게는 그와 관련된 기대가 없다. 아니 어쩌면 의지적으로 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의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다. 어쩌면 문제도 함께 받았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의 조심스러움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 한국 교회의 이 문제들을 거슬러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순전한 갈망,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에 맞는 삶을 살려는 모습이 결국 선대의 수고와 삶을 부정하고, 그저 뒷세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지지는 않을까는 걱정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 역시 선한 뜻으로 시작한 고민의 해법을 단순히 부모님 세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슬픈 일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공동체의 부정에 아파하고 갱신을 요구할 때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 어른들의 경륜과 권위 앞에 버릇없게(?) 대들지는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기도 어렵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 친구들에게는 책임감 있는 어른들의 도움과 살림이 절실하다. 내가 진실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러한 청년들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준귀한 어른 성도들이 여전히 계시고, 또 바른 열심과 가슴앓이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 혹여 어른들께서 이러한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함께 이 말씀을 붙들자고 권하고 싶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FAITH & LIFE**



글쓴이 홍원의

서울대 동물생명공학전공부 4학년 재학 중이며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이다. 대학 입학 후 기독교아리(JOY)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의정부 호원성결교회 청년부 회원이다. 현재 복음을 전해준 형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소망과 오늘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필요한 변화와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청년이란

신소라 (베리타스포럼 스텝 / 클라리넷 연주자)

“음, 괜찮네요. 주말에도 일할 수 있죠?” 그럭저럭 파트 타임 면접을 마쳤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들어온 질문. 교회 공동체의 리더 교육이 대부분 토요일이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아서 일요일만 제외하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떨어졌다. 21살, 내가 처음 겪어 본 사회의 편견이었다.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 할머니 따라 교회예를 갔을 때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아서 성인이 되고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했다. 꼬박꼬박 주일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팀과 청년부 리더를 맡으면서 외부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

2004년, 어떤 유명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그 날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슬며시 다가와서 물었다. “소라 씨는 이번에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단순히 내 생각이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개신교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간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뭘, 그거야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라고 받아들였는데 나에게 질문했던 그분한테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두어 번 같은 질문을 더 들었던 기억이 난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일성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세

상에 내놓아야 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토요일 야간 근무로 주일 낮 근무를 대신했다. 그래야만 나는 안전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나마 합리적으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20년 전후로 세상은 개신교인들에게 ‘합리적’일 것을 드러내 놓고 요구한다고 느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을 제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셨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조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느새 사회를 감싸는 큰 틀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개별성을 강조하고,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회문화적 흐름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성과 대립하고 있다. 현대의 청년들은 상대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신 본인들의 가치관도 충분히 존중받기를 원한다. 이런 지점에서 기성세대와 갈등이 일어나고, 여전히 수많은 교회에서는 “너의 신은 너의 신, 나의 신은 나의 신”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 고민하기보다 그건 사탄



이 주는 생각이라고 치부한 채 틀렸다는 메시지만 전달하기 바쁘다. “왜?”라고 물었을 때, 질문자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자의 위치에서 지금의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는 지성도 영성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신학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질문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 주일식 신앙의 결과물로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곳, 정죄하는 손가락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만 향하는 곳,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빛을 어둠으로 가리면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 안에 거하는 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그런 곳,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 예수의 가르침을 묻고, 교회의 역할을 묻는다. 나 역시도 배운 대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말하는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또 나의 모습에는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설교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공동체만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 역시 교회임.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세상의 올바른 렌즈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레위기 19장을 참고한다면 거룩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울 수 있도록 밭에서 난 곡식이나 포도를 딸 때 전부 따거나 줍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웃을 억누르거나 다른 이의 품값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삼가며,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고,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킨다.

내 주변에서, 또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유난히 한국 교회를 차갑게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 분명 또 다른 청년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 따뜻하고, 어둠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뒤를 이을 신앙의 후배들이 세상의 눈으로 한국 교회를 볼 때는 나와 같은 경험보다 후자의 경험이 더욱 강하게 다가오기를 소원한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중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소라

경기도 수원외 가습위는교회(기침) 청년이다. 베리타스포럼 스텝을 맡고 있으며,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는 패기 넘치는 청년이다. 클라리넷 연주 및 방과 후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클래식 공연 기획 관련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글쓰기를 좋아해서 호시탐탐 작가의 자리도 노리고 있다.

일상 속의 ‘스토리’(Story)

문창훈 (성남시청 스마트도시과 주무관)

나는 공무원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지 4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 컴퓨터 보안을 다루는 ‘정보통신과’, 예산을 다루는 ‘예산재정과’ 등의 부서를 거쳐 지금은 성남시 도시정보를 운영·관리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일하고 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좁고, 그 속에서 어두움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어두움으로 아픔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에 따뜻함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의 빛을 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스토리’(Story)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할 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성남시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핫플레이스’(Hot Place). 성남은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온 고향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모두 성남에서 자랐다. 성남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대학교 시절의 친구들도 살고 있다. 네이버, 안랩 등 유망한 IT 기업들이 성남에 많이 있어, 대학교 컴퓨터학부 동기들이 취업을 위하여 성남으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었는데, 많은 친구가 사는 성남은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이었다. 둘째, ‘시간’(Time). 일상 속에서 아

침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출퇴근에 따른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만큼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었다. ‘핫플레이스’와 ‘시간’, 이 두 가지 이유로 성남시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나는 성남시 공무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바라는 것들은 매번 어긋났다. 그럴수록 성남시 공무원을 향한 비전이 더욱 간절해졌다. 자기 전에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다. “저에게 정말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저 혼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감사하게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남시 공무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공무원 임용장을 받으며, “주변 이웃까지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했다.

지금까지 4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미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게도 직장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예를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들을 이따금 만날 수 있었다. 만날 때마다 반가웠다. 마치 “감추어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 등으로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육아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를 다니기가 점점 힘이 든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신앙생활에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스토리’(Story)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다.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 성남시 공무원 간 친목을 다지는 동호회가 30여 개 있다. 축구, 사진찍기 등의 취미활동 동호회부터, 독서모임 같은 자기계발 동호회와 불자회, 천주교 등 종교 동호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쉽게도 개신교와 관련한 동호회는 아직 없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신우회’를 이루어,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주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며, 그 속에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하는 마음이 생겼다. 재밌을 것 같다. 훗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신우회’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이 착한 것만으로는, 모임을 이룰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없다.”라

는 것을 안다. 그에 걸맞은 영성과 성경 말씀을 갖춰야만 한다. 지금의 나로서는 ‘신우회’를 이루기에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성경 말씀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온전히 자랄 수 없다. 일상 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하는, 자신만의 ‘스토리’(Story)가 있어야만 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무료급식 봉사활동’, ‘주중 성경읽기모임’, ‘찬양을 통한 PBS(Personal Bible Study)’, ‘청년부 국내선교’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영성과 성경 말씀을 갖추는 데 노력해온 이유이다. 스토리를 이루기 위한 길을 가는 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문창훈

성남시청 스마트도시과 주무관이다.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 도곡동의 서향교회 ‘가복청년’ 소속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스토리’(Story)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의 신앙은 아직 성장 중

신예영 (토목설계회사 '시스트라코리아' 사원)

나의 신앙심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한 때가 많았다.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두었던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친구와 놀고 싶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너무 귀여워 보고 싶고, 항상 가던 곳이고 또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등.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양하며 얻는 마음의 평안도 좋았고, 연합 수련회에 가서 나와 비슷한 또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았다.

초등학교 시절,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면서 하루 한 번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끼니를 거른 듯한 느낌마저 들던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집이 이사 간다는 상황에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 가족에게 교회에 나와보지 않겠냐고 하셨다. 그래서 그 가족을 매주 만나기 위해 나간 곳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겨자씨교회이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교회는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흥천으로 가는 여름 수련회에서의 물놀이와 간식,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성인이 될 즈음에 우리 교회는 조금 어려워졌던 것 같다. 예배당도 열악해졌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예배드리던 가족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공교롭게 그 무렵 나의 일상도 바빠져서 주일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쉬는 날 중 하루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교

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정도로 나는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는 것 같았다.

1년 동안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곳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 거기서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 차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는데, 직진하던 차가 빨간불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차 운전석 범퍼를 받아버렸다. 자동차가 치참히 망가져서 폐차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정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는다. 대학 입시 때는 수시전형으로 넣은 모든 대학에 다 떨어지고 딱 한 군데 예비번호를 받았다. 나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재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예비번호가 빠졌고, 합격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은 평탄한 편이었다. 가족에 큰 불화도 없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좌절은 아니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에 원하는 학교도 가고,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기 전 내가 꿈꾸던 워킹홀리데이와 여행도 모두 마쳤다. 졸업 전에 취업도 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토목 설계 회사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팀 소속으로 철도 교량을 설계할 때 필요한 3D 모델링과 2D 도면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 직장에는 많은 외국인이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슬람,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반면 직장 생활 중 이러한 경험도 있었다. 직장에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장님이 계신다. 언젠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을 만났다. 부장님은 그 곁을 지나면서 한마디 하셨다. “사람이 뭐든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종교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러니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지!” 나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나 한 명이 기독교에 대해 만연해 있는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바꾸겠나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저 나만 교회에 잘 출석하고 하나님

을 믿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속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박해받는 존재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언행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전에 쓴 글이라고는 대학교 입학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써본 자소서 거의 다였다. 이른바 공대생, 엔지니어의 삶을 살면서 글로 내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신예영

외국계 토목설계회사 '시스트라코리아' 기술본부 사원이다.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뉴질랜드로의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13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와 군 장병 사역 등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 겨자씨교회(홍상표 목사)의 청년이다



영상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기독교 - ‘호모 데우스’ 시대에 대안은?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라는 우산 아래 다양한 ‘기독교’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는 수많은 이의 구원의 방주가 되었지만, 동시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독일에 나치 주의자들이 일어나 파시즘의 성격을 띤 제국기독교(Deutsche Reichschrten)를 형성하여 복음적인 고백 교회를 탄압하였던 사례가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과 청교도 후예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후에 러시아 정교회가 확산에 찬 비호를 하고 있다. 이들 현상은 모두 ‘기독교’의 이름 아래, 심지어 ‘신의 이름’과 ‘신의 가호’를 외치고 있으니 과연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C.S. 루이스가 왜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를 추구하려 했는지 이해가 간다.

비열한 이기주의의 집단?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냉소적이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한다는 말이 나온다. 왜 그럴까. 최근에 <오징어 게임>(2021)이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이 드라마의 인기 요소 중 하나가 사회풍자, 사회고발이었다. 생활에 필요한 돈, 그런데 그 돈이 점차 사람을 지배하면서 물신(物神)이 된다. 사람들은 돈으로 인해 돈에 취하고, 끝내 돈에 포로가 되어 생명까지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다. 극중 인물들은 끝까지 살



미나리

아남아야 하기에 어느새 극단적 이기심을 발동한다. 여기에 한 기독교인이 등장한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는 그 사람, 참 이기적이다. 목숨 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 주술 같이 들린다. 공포에 못 이긴 발버둥의 외침일 뿐이다. 극한 상황에 빠진 이유도 세속적 욕망 때문이었으니, 이는 신앙에 대한 배반이었다, 외출타기 같은 경쟁 속에서 자신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종말을 맞는다. 드라마는 그리스도인의 심리를 결코 고상하게 봐주지 않는다. 자기만 살아야만 그만이라는 비열한 이기주의자로 묘사한다. 믿는자들이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당신들의 천국’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이 모습이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아닐까.

신앙 일상의 성실성!

반면 영화 <미나리>(2020)에서는 기독교적 정조(Mood)가 다르게 보인다. 정이삭 감독의 자서전적 생



오징어 게임

애를 다루는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민 과정을 잔잔하게 보여준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라는 전원 지대로의 이동,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는 주인공 제이콥과 그 가족의 삶이 그려지는 가운데 기독교적 이미지가 적잖이 등장한다. 영화는 많은 복선과 상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 요소들이 부딪치고 화해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끝내는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미나리의 상징성은 어디에서 잘 자라는 인내, 끈기,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불평만 늘어놓지 않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묵묵히 행동하는, 그 진지함과 성실함이다.

성공이라는 지상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그러나 가장으로 혼자만 고투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와 두 아이 모두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에 한국에서 온 할머니는 전혀 다른 외톨이 같지만 결국 가족 모두를 끌어안는 ‘어머니(모성)’이다. 주변 인물로 보이는 이웃 풀, 마을 교회의 식구들은 꾸밈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그린다. 주인공의 가정과 이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갈등, 화해, 신뢰를 형성하며 사랑으로 향하는 모습은 기독교적 플롯이라 하겠다. 비록 할머니(윤여정)가 “아이한테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말라”, “그런 천국은 안 가도 돼!”라는 대사를 했다고 반 기독교적이라 평할 수 있을까!

기독교적 대안을 찾아서

현대 사회에 비치는 기독교는 부정과 긍정 사이를 오간다. 어떤 관점에서 서느냐에 따라 기독교는 냉소적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때로 호모 데우스들(신이 된 인간들)은 ‘기독교의 종말’을 외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 기독교가 역사적 스캔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로 빠져든 것처럼, 현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복음의 정도(正道)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형성된 바벨탑 같은 모임이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 예수께서 책망하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마21:13). 그렇다면 이제라도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대명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절대 명제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1:27). 그러할 때 비로소 사회를 위한 기독교적 대안(Christian Alternativ)은 발견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도시 야경의 ‘네온 십자가’, 이를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2011년 국회에서 십자가와 첨탑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적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했을 때, 기독교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교회를 제외시킨 일이 있다. 2021년에는 교회의 빛 공해 문제가 공론화되자 서울시가 철거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교계 지도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 역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한번은 입법 추진, 또 한 번은 시(市)의 정책을 모두 막아냈으나 빛 공해의 피해자인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만큼은 피해가지 못한 것 같다.

이즈음 우리는 교회가 ‘네온 십자가’를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상적 의미를 질문하게 된다. 십자가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인 카타콤 시대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이지만 악명 높은 사형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초기 수 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초기 상징물로는 ‘키로 모노그램’(Chi-Rho monogram)과 ‘희망의 닻’(anchor of Hope)이 있었는데 둘 다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십자가 형태는 눈에 띄지 않는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십자가가 일반화되었으며 기독교 상징물들은 350년경부터 기독교 예술과 석관과 같은 장례식 기념물들에 주로 사용되었다. (사진 1 서성록-도시의 밤 풍경)

콘스탄티누스 이후 수 세기 동안 기독교 신자는 악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집중하였고 예수의 고통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피했다. 그러나 9세기 비잔틴 시대의 예술가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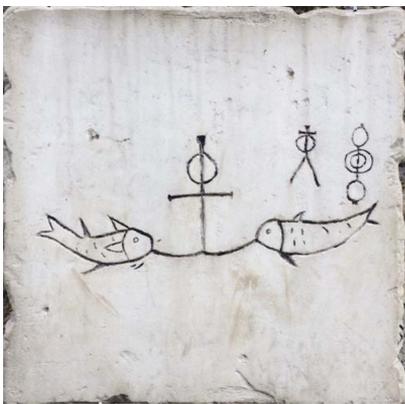
도시의 밤풍경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음의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눈은 감겨있고 머리는 숙여 있으며 몸은 처져 있다. 그 후 십자가에 대한 묘사는 회화든 조각이든 고통에 대한 다각도의 표현으로 발전해갔다. 로마네스크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왕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고딕 양식들은 그것을 ‘가시면류관’으로 대체하였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십자가 이미지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 개혁교회는 교회 건물과 성찬식 테이블 위에 성례용 십자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20세기 전까지 십자가 사용을 장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십자가 상징물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도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왔다는 뜻이다. 그들은 십자가 상징물 대신 솜씨 좋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성경 구절이나 십계명을 패널에 새겨 벽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런 패널들은 교회의 성례식과 연관되며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성경이 유일한 원천이자 준거란 칼뱅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기독교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교회가

빈약하게 만들어진 상징물에 의존하는 현상은 어느새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문제가 되는 '네온 십자가'는 교회가 도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간주될 법하다.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든 그것은 익명의 다수가 집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띤다.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키치, 즉 '볼품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인공조명이 쏟아내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밤잠을 설친다고 원성이 높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용도의 적합성 면에서도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회 밀집 지역으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도시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문화적 방식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데에 있다면 '네온 십자가'는 그 사역을 무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사진 2 서성록-희망의 닻, 성 도미틸라 카타콤, 150-200년경)



희망의 닻, 성 도미틸라 카타콤(150-200년경)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 일에 가장 능숙한 예술가인 두로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던 솔로몬은 종교적 신망보다는 예술가들의 탁월한 솜씨를 높이 샀던 것이다. 공교로운 예술성과 미적 가치를

구약에서도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놓쳐선 안 된다. 교회의 천부적 권리는 창의성과 인간 잠재성의 원천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에 참여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먼저 우리가 속한 모임의 장소, 즉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관계성에 대해 배운다. 이로 인해 제임스 스미스(James K. Smith)는 "영혼을 위한 진실된 학교로 잘 꾸며진 환경"을 갖추라고 권면하였다. 그런데 '진실된 학교'에 '볼품없는 시설물'이라니 논리에 맞지 않는다. "중중 나쁜 예술은 무지로 인해 영구화된다."(W. David O. Taylor).

이전만 해도 '네온 십자가'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며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주민이 잠을 설치며 피로감을 표시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교회의 태도는 지역공동체의 관계 형성과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공부방, 나눔 가게 운영, 사회봉사 등 여러 형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데 이를 감쇄시키는 일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표식'으로 교회 됨을 알리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통과 섬김을 강화한다면 지역공동체 역시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기술에 대한 사랑과 반란

장수영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현대인은 기술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져 있다. 머지않아 AI와 로봇 기술은 모든 힘들고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구할 것으로 보이고,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과 결합한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만들어 내는 메타버스 상에서 온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초연결성을 이루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꿈꿔온 유토피아는 곧 현실이 될 것만 같고 기술에 대한 현대인의 사랑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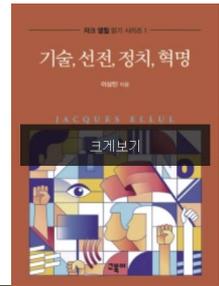
그런데, 무언가에 대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멀고 귀먹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현대 기술을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새롭게 살펴보기도 해보지만, 기술 덕에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 현대 기술에 대해 좀처럼 불평할 것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그 시대의 잘못을 보지 못하던 백성들이 선지자의 준엄한 경고의 소리를 듣고 서야 화들짝 깨어나는 것처럼, 현대 기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평을 듣는 일은 이 시대를 책임 있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대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의견만 가득 담긴 '선전'에 취해서 보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려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듯한 마음으로 자크 엘뤼(Jacques Ellul)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현대 기술에 대한 비평을 들어야 한다.

자크 엘뤼는 현대 기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비판을 제기한 학자로 유명하지만, 그의 저서는 난해하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엘뤼는 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신학적인 논의를 따로 나누어 논하는 편을 택하였기에, 엘뤼가 가진 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 이상민 박사는 신간 <기술, 선전, 정치, 혁명>에서 자크 엘뤼가 여러 저서를 통해 피력했던 현대 기술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비판적 불평들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담아내었다.

모두 3부로 나뉘어 집필된 이 책의 제1부는 엘뤼의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상세히 담고 있다. 제2부에서는 선전과 정치 체계 안에서 기술이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마지막 제3부는 '혁명'의 본질적인 불가능성을 서술하면서 인격주의 운동을 지향하는 '반란'에 그리스도인들의 혁명적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 책을 마무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엘뤼의 사상을 정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나 금융위기 혹은 기본소득과 같은 최신 이슈들에 엘뤼의 사상을 적용하는 것을 곳곳에서 시도한다. 이 책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운 것은 사실이지만,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서에서도 늘 함께 발견되는 것과 같은 희망의 빛을 이 책 구석 구석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제3부에서는 '혁명'과 '반란'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그



〈기술, 선전, 정치, 혁명〉 / 이상민 저 / 고북이 / 2022

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행동 강령을 찾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테러 행위’에 빚대어 기술 현상을 묘사하거나, 기술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소중한 부분들을 잃고 있으며, 기술이 만들어 낸 ‘새로운 성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에만 익숙했던 독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이다. 더 나아가 ‘신성한 것’(153쪽)이 되기에 이른 기술을 논하는 제1부의 마무리 지점에 이르러서는 특히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기술에 대해 어두운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제2부는 선전과 정치가 기술 현상에 어떻게 깊이 관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엘릴 특유의 분석으로 매우 흥미롭다. 엘릴의 의하면, “정치는 선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치적 환상을 이용하여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능을 유도한다.” 따라서, “정치적 환상을 벗어난 ‘시민’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태도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엘릴은 이러한 활동을 “인간적 민주주의”라 규정한다.(255~259쪽).

제3부에서는 ‘혁명’의 불가능성과 ‘반란’의 필요성을 다룬다. 엘릴은 “필요한 혁명’의 순간은 지나갔다.”(285쪽)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직 ‘반란’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제3세계의 실제적인 필요와 충족을 위해, 이자 없이, 채무의 상환 없이, 간섭 없이, 군사적 침략이나 문화적 침략 없이 완전히 이해관

계를 떠나 제3세계에 원조하는 것, ‘비무력’(非武力)을 의도적으로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분산과 다양화를 시행하는 것,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과 임금제도 폐지”(308쪽) 등의 실천하기 힘들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은 혁명적 실천 강령들을 제안한다.

기후 문제, 양극화, 금융위기, 고령화, 청년실업과 같은 수많은 이 시대의 문제들에 기술 현상은 깊이 관여되어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대세인 오늘날 한국에서 현대 기술에 담긴 부정적 의미를 깨닫고 이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성서적 세계관을 통해 기술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아 현대 기술의 어두운 모습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할 행동 강령들을 찾아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에 담긴 ‘반란’의 의미를 찾아보는 즐거운 독서 삼매경의 경험을 권하고 싶다. FAITH & LIFE



✍ 글쓴이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다. ‘크리스천과학기술인포럼’과 ‘나눔과기술’ 그리고 ‘적정기술학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의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사로 섬기고 있다.

'이중직 목회자'라는 주변부로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을 추모하다

김반석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저자 김재완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총신대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중, 목회자가 대면해야 할 세상에 대해 더 배우고, 다시 세상 속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당시 필자는 김재완의 연구실 옆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 그리고 교회 갱신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는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이자,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인 김재완의 고민의 결정체이다. 필자가 아는 바로 저자는 대학원 동기들에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을 설명하는 가운데 새삼스럽게 '일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단지 목회자 개개인의 빈곤과 열악한 노동 현실에 그치지 않고, 쇠퇴해 가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압축되어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며, 축적된 과거를 당겨오는 현재의 사건이고, 그렇기에 인류학에서 말하는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18쪽). 그리고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주변부의 이야기로부터, 폭발적인 성장과 급격한 쇠퇴를 불과 반세기 만에 겪어 온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본다.

우선, 저자는 '이중직 목회자' 현상의 배경에 있는 목회

자들의 빈곤이, 성장을 멈추고 쇠락해 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의 한 단면이라고 진단한다. 한국 교회 성장기의 끝 무렵이던 2000년대 중반까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교회 부흥의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했던 이들이, 막상 목회 현장에 나왔을 때는 교인 수의 감소와 교회 및 목회자 숫자의 포화상태로 인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곤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를 사회학자 김홍중의 '몽상과 파상'이라는 표현을 빌려 냉정하게 진단하며, 성장 이후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의 안타까운 징후로서 목회자의 빈곤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할 것을 주문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이중직 목회자 문제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화적 맥락들이 서로 얽혀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교단법에서는 개신교의 '만인제사장설'을 따라 목회를 성직이 아닌 교회 내에서의 직무로 규정했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목회자에게 '세상과 구별된' 성직자로서의 정체성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을 섬기는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부정되고, 성직자로서의 '청빈'이라는 명목으로 빈곤에 내몰리는 이중부정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나아가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목회 현장을 지키는 '목회자상(像)'을 '순수한' 목회자상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생계와 교회 운영을 위해 생업에 뛰어드는 목사들을 '순수하지 못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 김재완 저 / 이레서원 / 2022

한' 목회자, 혹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 목회자로 여기는 이분법적 인식이 목회자들의 문화 가운데 남아있다고 지적한다.(89쪽). 한편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교단의 이중직 금지법 담론을 추적하면서, 이 법이 이중직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강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이중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이후의 교회의 재생산 과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저자는 기독교의 교리부터 교회법, 목회자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맥락들을 살피는 가운데, 이중직 목회자 문제가 "성장이 멈춘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목회자는 누구인가?", 혹은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중직 목회의 현장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열악한 생계의 문제와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는 제약,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중직 목회를 이어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담담히 그려낸다. 그리고 임금 노동과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곳곳이 사역과 노동을 이어 나가는 이들의 고민을 잘 드러낸다. 그중에서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는 자신의 처지를 바빌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비통한 중에도 바빌론 왕의 명에를 메고 포로로서 성실이 살아가자고 선포한 것에 비유하여,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금의 상

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며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소명을 쫓아가는 이중직 목회자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전달하고 있다.(167쪽).

이중직 목회자 문제는 그동안 단순히 목회자 개인의 빈곤 문제로 환원되어 목회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 이중직 목회자 문제야말로 '성장-이후' 한국 교회의 구조적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임을 지적하며, 그곳에 서서 한국 교회의 과거를 성찰하고, 이제는 멈추어버린 성장의 시대를 '추모'하면서, 이후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낯선 것을 익숙하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인류학의 시선을 통해, 저자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주목받지 못한 주변부의 이야기로부터 한국 교회의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진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는 시도가 한국 교계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재완

현재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학부와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일본 문부성 장학금 시험을 통과하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 유학 중이며, 최근 사회학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학부 시절에는 기독교 동아리 SFC와 서울대기독교인연합(서기연) 중앙위원단으로 활동했다.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새롭네 ‘욥’

이진희 (원주중앙침례교회 목사)

욥기. 참 넘기 힘든 산이다. 창세기와 비슷한 연대를 공유하니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이고, 어려운 내용과 지겨운 고통이 넘친다. 쉽게 웃을 수 있는 ‘틱톡’이 대세인 지금, 40여 장에 달하는 욥의 분투는 지루하고 길기만 하다. 다 치우고 얼른 42장의 회복과 축복에 도달하고 싶을 뿐이다. 그런 나의 발목을 <욥, 까닭을 묻다>가 잡고, 늘어난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높기만 하던 욥기를 집 앞 언덕 정도로 낮춘다.

저자는 김기현이다. 한국의 필립 안시(Philip Yancey)로 불리기도 하는 그답게 잠자는 글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덕분에 성경의 인물은 살아나고, 변명의 기회를 얻는다. 이미 저자는 <내 안에 야곱 DNA>,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등의 책을 통해 멀게 느껴졌던 성경 인물과 독자 사이에 교감의 다리를 놓은 바 있다. 이번에는 ‘욥기’다. “왜 하필 욥일까?”라는 의문은 책을 펴는 순간 사라진다. 모두 고통과 ‘한 가족’이 된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저자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을 대언한다.

4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욥기 전체를 아우르는 묵상집이다. “텍스트 안의 드넓고 무궁한 행간”을 마음껏 사용한 작가의 묵상과 책 곳곳에 묻어나는 깊은 연구의 흔적은 이 책에 매력을 더한다. 고통의 문제는 이성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기에 저자의 이러한 접근

이 욥기를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가독성이다. 잘 읽힌다. 편안한 문장과 적절하게 나누어진 소단락은 친절하게 독자를 성경의 세계로 인도한다. 여기에 저자의 전공인 인문, 고전, 철학, 신학,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까지 버무려 풍성한 입을 거리를 제공한다. 잘 쓰인 책이란 바로 이런 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저자가 욥, 욥의 아내, 욥의 친구들, 사탄, 리위야단 등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다. 우선 욥은 하나님께 대항했고, 욥의 아내는 악 처 같은 언행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결정적 공헌자’이다. 또 저자는 통상적으로 사탄, 세 친구, ‘리위야단’이 욥기에서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이들 모두 ‘나’ 자신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이 떠오른다. 평범한 혹은 신실한 신앙인인 나도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다. 타인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저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이기에 참으로 뼈아픈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책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는 ‘신정론’이다. 진퇴양난의 상황, 곧 하나님이 악하던지, 아니면 의인 욥이 죄인이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욥이 죄인이 되어



〈읍, 까닭을 묻다〉 / 김기현 저 / 두란노 / 2022

야 한다. 하나님이 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읍은 이 사실을 참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도 대체 누가 의인일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인간이다. 읍이 지은 죄가 매우 크다고 치자.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드넓은 세계에 비하면 그의 죄는 먼지 한 줌만큼도 안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해칠 리 없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시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이리도 처절히 읍을 응징하신다고? 의인 읍을? 저자는 세 친구의 인과응보, 신명기적 하나님과 읍의 '신비'이자 '깊음'의 하나님을 비교하며 숨어 계신 진짜 그분을 변호한다.

언덕 위에서 보니 읍기가 참 좋다. 길고 긴 서사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제야 우울했던 이야기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 메아리친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가진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며 계속 떠올랐던 문구이다. 저자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읍기는 ‘나’에 대한, 그리고 “인생은 고통”이기에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준다. 동시에 개인의 신앙 속에 간혀 있던 하나님을 ‘무한’의 영역, ‘신비’의 자리로 회복한다. 덕분에 오해는 풀리고 오늘이 해석된다. 읍기를 잡고 끄꿍대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당신이라면 〈읍, 까닭을 묻는다〉의 일독을

권한다. 언덕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경험할 것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정면이 아니라 이면의 하나님을 보았던 읍은 그리스도 이전에 가장 크게 버림받았다. 그랬기에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전면과 전모를 알아 간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절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끝끝내 기도하는 읍은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읍과 그리스도처럼 그런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끝끝내 기도한다.”(168-9 쪽). **FAITH & LIFE**



 글쓴이 이진희

현재 원주중앙침례교회에서 두 명의 친구와 팀으로 사역하는 목사다. 대학 선교단체 IVF를 통해 만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명의 자녀 재아와 재이를 둔 행복한 가정이다.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현재 원주 단계동에서 교회와 이웃 사이 함께할 공간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Dr. Yang is visionary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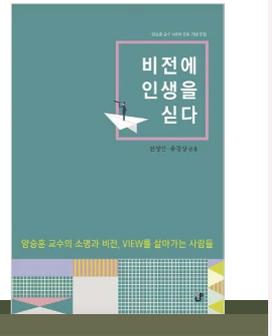
이 글의 제목은 양승훈 교수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신학 석사과정을 재학 중일 때 미국 휘튼대학(Wheaton College) 신문에 나왔던 타이틀과 같은 것이다. <비전에 인생을 싣다>(2022, CUP)라는 이 책의 제목 역시 그 신문 기사 타이틀과 상통한다. 양승훈 교수께서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고, 이에 따라 그 열매가 어떠했는지 이 책에 나타나 있다.

내가 양승훈 선배를 처음 만난 것은 1982년도 KAIST 경영과학과 성경 공부에서였다. 양 선배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수시로 나타나 함께 기도하고 성경도 풀어 주었다. 촌사람처럼 흰 고무신을 신고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아무도 그를 촌사람으로 업신 여길 수 없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특심한 사랑이 그를 빛나게 하였기 때문이다. 졸업 후 나는 직장에 취업하였고, 인천대학교에 강의를 나갔다가 장경 교수님 연구실에 들렀다. 갈색 소책자가 있어 집어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맞다!”라는 생각에 내용을 보니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회원을 모집하는 소책자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1986년 나는 생면부지의 경북대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아는 분이 양승훈 교수님뿐이라서 부임 전 2월에 만났더니 3월 시카고대학교에 박사후과정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밥을 사주면서 동

역회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였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인상적인 문구가 다시 기억나서 동역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공이 경영학이었기에 동역회의 기획 담당을 맡았다. 어리숙한 내가 기획을 맡은 것이 걱정되었을까, 각 분야 책임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후 동역회는 서서히 좀 더 체계화되었고, 사단법인 등록도 이루어졌다. 이사회에서 김준곤 목사님께서 30세 전후의 우리를 보고 너무나 흡족해하셨다. “선진국은 배운 사람,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학자들이 많으니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격려하셨다. 김준곤 목사님께서서는 떠나시면서 “사람이 많은 것보다 미친 사람이 있어야 해, 비전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일이 돼요”라고 말씀을 주셨다.

양승훈 교수께서 다시 경북대학교로 돌아오자 한결 마음이 놓이고, 사역도 정리되었다. 그런데 양 교수께서는 항상 고민하였다. “어떻게 기독교 대학을 시작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세우려면 막대한 자원과 대통령 정도의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의 속설이었다. 그런데 결국 양승훈 교수님은 1997년 가을 경북대학교를 사직하고 캐나다로 떠났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대한민국이 부도난다고 떠들썩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직 사표를 내고, 모든 짐을 정리하여 떠나다니. 그는



〈비전에 인생을 신다〉 / 전성민, 유경상 편집 / CUP / 2022

밴쿠버로 이주하여 2층에서 1층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한동안 계속하였다(그때 상황에 대하여는 글, '사직의 변'과 '하늘나라 철밥통'을 읽어 보시라). 이 무렵 밴쿠버에 갔다가 무직자(자칭 직함은 있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 양승훈을 만났던 방선기 목사님께서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친구 크게 되겠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 말이야." 정말 가슴이 아팠다.

1년 후 마침내 기적적으로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가 설립되었다. 이는 양승훈 원장님의 견고하고 신실한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역량도 힘이 되었던 것 같다. 물론 설립 후에도 문제는 있었다. 유학생들의 입학 허가, 정착, 다양한 학문적 배경, 그리고 서구 대학의 간간한 학사 관리, 그러면서 주변에 이상한 프로그램의 생성 등 해마다 위기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후퇴 없는 양승훈 원장님의 학업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와 성실함, 그리고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탁월했던 지혜로운 경영 능력에 의하여 상황은 극복되었다.

양승훈 교수님의 은퇴를 기념한 책, 〈비전에 인생을 신다〉는 신실한 한 사람의 사명에 대한 순종과 주님 안에서 선명한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다양한 간증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1부는 양승훈 교수 자신의 글이, 제2부는 다른 사람이 본 양승훈 교수 이야기가 진솔하게 쓰여 있다.

제3부와 제4부는 그 열매로서 졸업생들의 글이다. 나는 이 책을 양승훈 VIEW 원장 은퇴식에서 선물로 받았다. 은퇴하는 것을 영어로 re-tire라고 한다. 은사이신 김인수 교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오래 달린 타이어가 낡아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다시 달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양승훈 교수는 경북대를 조기 은퇴하고, 이번에는 VIEW를 은퇴하면서 바퀴를 바꾸고 다시 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양 교수는 항상 더 허름한 바퀴로 바꾸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선진국 캐나다 타이어를 빼고 아프리카 최남단의 에스와티니의 비포장도로를 허름한 타이어로 덜덜거리며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쩡하게 느껴진다. 아무쪼록 새로운 타이어가 잘 굴러서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의과대학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승훈 총장님을 통한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한다. 나의 일은 양 총장님과 동역자 사모님께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 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를 연구하였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한국 회계학회 회장, 한국 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돈 걱정 없는 가정>,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행복한 가정생활> 등이 있고, (사)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이사, 대구 성덕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다.

죽전우리교회 '세아신부 세미나' 소개



박태호 (강도사, 세아신부 세미나 담당 교역자)



최근 선교의 흐름을 보면, 선교의 필요성이 지역의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선교의 흐름 가운데 죽전우리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와 문화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세계관을 배우고 그것을 자녀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세아신부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아신부 세미나'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부모'의 줄임말이다. 즉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접하는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들과 함께 문화 콘텐츠를 분별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 교재는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이다. 주교재를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 연구소 '숨'의 강사 3명을 초청하여 6주간 강의를 들었다. 강의 구성은 '예습과제 점검 ⇨ 주강의 ⇨ 토론 ⇨ 실습 ⇨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주중에 주교재 내용을 미리 예습하였다. 그리고 강의 당일에는 미리 예습한 내용을 토대로 강사들이 제시한 주제 강의를 듣고 조별 토론과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인원은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교사와 학부모,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하였고 부서별로 조를 이루어 진행하였다. 강의는 같은 내용을 듣고 나누었지만, 실습은 해당 연령대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선정하였다. 조별로 콘텐츠를 분별하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대안을 세워보며 각 가정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는 시간이었다.

6주간 진행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진행 기간: 3/13-4/17)

- 1주차 -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기
- 2주차 - 자연주의
- 3주차 - 회의주의
- 4주차 - 포스트모더니즘
- 5주차 - 다윈주의와 상대주의
- 6주차 - 새로운 영성과 참된 기독교 영성

이번 '세아신부 세미나'는 세속주의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성경적 기준으로 문화를 변혁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죽전우리교회는 '세아신부 세미나'를 시작으로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부모와 아이들에게 나누려고 한다. 이러한 발걸음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세아신부’ 소감문

문화 콘텐츠 분별에 눈을 뜨다



‘세아신부’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책의 제목에 있는 ‘세상으로 달러가는 아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즉, 이 시대의 문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며 접하는 연세대인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문화를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분은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다. 유튜브나 OTT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특히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잔인하고 수위가 높은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때 그런 자극적인 내용에 무뎠어져 당연하게 시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아신부’ 세미나를 통해 문화 콘텐츠들을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니메이션을 볼 때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며 시청하곤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며 보는 것이 아직은 습관이 되지 않아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보고 있다. 분별을 통해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씩 정립해 갈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특히 ‘세아신부’ 세미나를 통해 인상 깊게 배웠던 것은 다양한 세계관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 이것을 배울 때에는 일상에서는 자주 듣지 않았던 개념과 사조들이라 “실용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몇 차례 강의를 듣다 보니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가 다양한 세계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나 내게 충격이었던 것은 자기계발 파트였다. 고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책을 읽는 시간에는 무조건 자기계발서를 골라 읽었던 기억이 난다. 명문대를 가기 위한 시간 관리법,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의 패턴 등을 자주 읽으며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상당히 벗어난 가치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세아신부’ 세미나를 통해 내 안에 있었던 세속적 세계관이 정리되었고 앞으로 올바르게 문화를 분별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흘려보내길 소망한다.

 글쓴이 이지영



경희대 체육학과 3학년 재학 중이다. 죽전우리교회에서 청년부 리더와 찬양팀, 미디어팀을 섬기고 있으며 건강한 청년 공동체 문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2)

- 시대정신에 맞서다



본래의 함의가 목직한 ‘기독교 세계관’이란 어휘를 기독교적 삶의 체계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 사용한 것은 네덜란드의 목회자, 신학자, 교육자, 언론인, 정치가이던 카이퍼였다. 그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쇠퇴하는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려는 열정 때문이었다. 당시 유럽은 인본주의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항하여 기독교 진리를 삶의 토대로 회복시키는 비전을 품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문화적 책임 의식을 깨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그의 소명 의식은 60세 되던 해에 스탠다르트(De Standaard)라는 신문에 쓴 글의 일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다시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서 재건될 것이며, 성경과 자연이 증거하는 주님의 계명을 국민의 양심 속에 되새기고 국민들은 다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되리라."라는 것이다. 그는 40년 넘게 이 기독교 일간신문의 편집인으로 글을 써 자신의 소명에 답하려고 애썼다.

카이퍼는 자신의 비전이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이것을 역사적 칼뱅주의 전통에서 발견했다고 분명히 밝힌다.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삶의 안목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칼뱅주의는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나 모든 생활의 부문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의 필요성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의 회복 운동이 '신(新) 칼뱅주의'(Neo-Calvinism)로 불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은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이 퍼트린 인본주의 사상과 그 뒤를 이은 진화론과 유물론 그리고 실증주의가 지배했다. 부패한 절대 왕정 독재에 반발해 일어난 시민혁명은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가 부정되자 혁명이 꿈꾸던 자유, 평등, 박애의 실현 대신 계급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한 폭력과 혁명이 이어지는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급진적 혁명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사회로부터 물러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네덜란드 역시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휩싸여 개혁주의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을 잃고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었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따라갔다. 특히, 상류층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세속화의 물결이 거셌다.

카이퍼는 “자본주의와 귀족주의 세력이 십자가의 군기를 끌어내리고 있었고, 19세기 후반의 끔찍한 배교의 분위기가 창궐하고 있었다.”라고 탄식했다. 오로지 중하 계층과 노동자 계층만이 전통적인 신앙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맹위를 떨치면서 정통 신앙은 무기력했다. 평범한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이퍼는 바로 이런 와중에 인본주의 정신에 맞서 기독교 신앙의 회복 운동의 기수가 된다.

카이퍼가 ‘역사적 칼뱅주의’ 신앙을 힘있게 옹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복음을 회복한 계기는 첫 목회지에서의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는 ‘보통 성도들’의 삶에 감화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근대적 자유주의를 용인하는 국가 교회를 개혁하려는 ‘돌레안치(Doleantie) 운동’, 즉 ‘애통자 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들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독단적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물론, 모든 형태의 교회를 다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자유교회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정한 개혁교회를 위해 원대한 비전을 품고 평생을 살았다.

이 점에 있어 카이퍼의 노력은 유럽 전역에서 인본주의에 맞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부흥시키려는 ‘레베유(Réveil) 운동’, 곧 ‘각성 운동’과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대체로 귀족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서민들이 소외된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 운동에는 대중성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카이퍼는 ‘작은 사람들’(kleine luyden) 편에 서서 그들의 신앙과 권익을 지키려 했던 지도자였다. 카이퍼 자신은 상류층이었지만 그의 목회와 정치·사회 운동은 항상 아동과 여성,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계층의 편에 서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다. 특히, 그의 기독교 교육 운동은 자녀들을 언약 신앙에 신실하게 교육하려고 해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의 부모들을 위해 벌인 활동이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양승훈 교수의 은퇴식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WIEW) 원장을 역임하신 양승훈 교수의 은퇴식과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 완간 기념회가 지난 6월 4일 서울 남현교회(윤영배 담임목사)에서 전성민 원장(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사회로 있었다.

양승훈 교수는 카이스트 대학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창조론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줄곧 헌신해 왔다. 그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

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과학사와 휘튼대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1983~1997)를 거쳐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을 설립하여 원장과 교수(1997~2021)를 역임했고, 주빌리채플 담임목사(2010~2021), ‘창조론오픈포럼’ 대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등으로 섬겼다. 2021년부터 아프리카 에스와티니기독교과대학(EMCU)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창조와 격변>, <창조와 진화>,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에서 홍수까지>, <그랜드 캐니언> 등 창조론과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40여 권이 있다.

행사는 양승훈 교수의 약력과 지난 여정을 정리한 영상 소개, ‘창조론’ 운동의 동지 조덕용 목사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성표 이사(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의 축사, 양승훈 교수의 ‘은퇴와 완간의 변’, 박종국 목사(다음교회)와 전성민 원장(VIEW)의 감사 인사, 서정식 목사(창조회)의 축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양승훈 교수는 ‘은퇴와 완간의 변’에서 특별히 창조론 연구자로서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어떤 이유로 창조과학회가 제시한 ‘단일격변설’에 입각한 열정적 ‘젊은 지구론자’에서 프랑스 창조론자 조르주 퀴비에(George Cuvier)가 제시한 ‘다중격변설’을 대안으로 수용한 ‘오래된 지구론자’가 되어, 지구의 생성 연대에 대한 이견으로 창조과학회와 갈라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켜 보니 같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생성 연대 문제로 싸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귀국 후 창조과학자들과의 화해의 만남 자리도 예정되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양승훈 교수의 이번 행사는 2005년 기획에서부터 최근 7권으로 마침내 완간한 저서,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의 완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는 <다중격변창조론>(2011),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2011), <창조와 진화>(2012), <대폭발과 우주의 기원>(2016), <창조연대 논쟁>(2017),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2021), <과학사와 과학철학>(2022) 등을 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창조론 논의에 대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탐구의 값진 열매로 평가되고 있다. **FAITH & LIFE**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 5+6월호 | 특집: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교회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돕는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코로나 19'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은정 (순천향대 보건행정보건학과 교수)
- 유경상 대표(CTC)의 실제 삶으로 총체적으로 안내하는 신앙교육이 절실하다는 말이 공감됩니다. 또한 아이들만이 아닌 전(全)세대가 다음 세대일 수 있다는 말에도 동의하며, 교회 교육의 구조인 변화와 이를 위한 신앙적 활동 계획을 기대하며 소망해봅니다. - 김경민 (전남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아이들 교육은 이게 다일 듯합니다. 성공 신화에 매몰된 유대인 교육은 그만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의 옛사람 기질로 자녀교육은 아직도 무너지지만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부족하나마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 김상범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
- 인상적인 것은 유경상 대표(CTC)의 "'다음 세대'를 아동 청소년에 제한하지 말고, '전(全) 세대'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가정과 교회의 지속적 협력, 통전적 교육을 이루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부모와 교사의 헌신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복음과 참된 회심을 통한 진정한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김지곤 (서울 성은교회 담임목사)
- 이번 호에 실린 다양한 글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문제는 바로 나를 포함한 '기성 세대'의 신앙과 세계관의 문제임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全) 세대가 다음 세대'로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유경상(CTC) 대표의 언급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 김지원 (백석대 보건학부 교수)
-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교회 속에 침투한 세상 가치를 지워내고, 부모는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을 동시에 따르는 이중적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 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마르쿠스와 니체는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을 버렸습니다. 가정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부모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 세대' 양육에는 먼저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송종철 (보성 우리교회 담임목사)
- '코로나 19' 세상에 살면서 아이들의 세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모로서도 교사로서도 늘 고민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과 삶>에 담긴 지혜는 나침반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상투어'를 벗어나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으면 어땠을까요? - 유승민 (샘물중고등학교 교감)
-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과 재정도 많이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그 사랑을 가까이에서 꾸준히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을 김수홍 선생님의 글은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안성희 (서울 남포교회 부목사)
- '부모교육에 상당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는 부모교육이 함께 가지 않으면 교육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한다는 '김천 정통령 목사님'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 조성진 (서산 한뜻교회 부목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2년 제2차 이사회/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오후 7시(이사회) & 오후 8시(임시총회) 개최 예정

장소 :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 2022년 감사 임기 만료 및 선출의 건, 상반기 사역 보고 및 재정보고, 학술대회 등 기타 안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입 이사 등 서울시 교육청 승인

최현일 (신임 이사, 샘병원 의사, 2022. 06. 21 ~ 2026. 06. 20)

장수영 (연임 이사, 포항공대 교수, 2022. 06. 21 ~ 2026. 06. 20)

2022년 <신앙과 학문> 계속 평가 서류 제출완료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의 재인증평가의 서류 제출을 완료했고 결과 발표는 10월 말에 있다. 통과 시 2028년까지 6년간 등재 학술지 자격을 유지한다.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 개최 안내

주제 :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일시 : 2022년 10월 29일(토) 10:00~18:00

장소 : 백석대학교(천안)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7권 2호 발간(2022년 6월 30일)

15평의 논문 투고 중, 박영철(백석대 교수)의 논문 등 총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그소서원 대표),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M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중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트스디지탈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웅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기 바란다.

2) **2022년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학교설명회(문의 및 신청: viewinkorea@gmail.com)**

- **일시 & 장소** : 2022. 6. 27.(월) 오후 6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3길 15 산성빌딩 104호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가 3월부터 개교하여 16가정, 26명의 아이들이 매주 교육받고 있다. 6월부터 가을학기 신입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 **지도자 교육**: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22명)과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2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9명)이 3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 **부모 교육**: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가 3월부터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도마 신학 읽기'를 마치고, 9월부터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천로역정 읽기'가 개설될 예정이다.(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
 - **대학생 교육**: 9월부터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수업이 진행된다.
 - **교회 교육**: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9월부터 '삼일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다.
 -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9월부터 2학기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가 진행된다.**
- * 문의/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 바란다.
* 기독교세계관으로 사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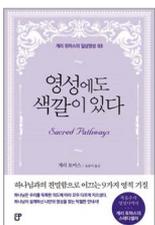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비전에 인생을 신다**〉 전성민, 유경상 편집 | 268면 | 12,000원 | CUP

양승훈 교수(에스와티니기독교의과대학 총장)의 소명과 비전

캐나다 밴쿠버에 1998년 설립된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이하 VIEW)에서 지난 20여 년간 많은 사역자, 교사, 의사, 직장인들이 공부하고 졸업했다. 이제는 다양한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세계관적 사역을 감당하는 졸업생들을 만날 수 있다. 양승훈 교수의 VIEW 은퇴를 기념하며, 그간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8명의 동료와 제자들이 쓴 글을 모았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전면칼라 356면 | 16,000원 | CUP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끄는 9가지 영적 기질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한 의도에 따라 모두 다르게 지으셨다. 영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책이다. 저자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의 다양함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인다. 그는 영성의 아홉 가지 다양한 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신의 색깔에 맞는 영성의 길을 발견하기를 권유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 (2022년 5월, 6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5월	2022년 6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5월	2022년 6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570,000	1,5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100,000	5,100,000
	임원회비	660,000	43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5,441,000	4,915,000		소계	5,500,000	5,500,000
	기관후원금	3,300,000	3,061,524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368,334	357,408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62,250	175,25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11,780	12,600
	VIEW후원금	1,125,000	1,215,000		식비	315,700	329,800
	기타후원금	0	0		복리후생비	783,480	799,690
	월보구독료	416,500	371,500		퇴직연금	234,030	234,030
	학술지원금	0	0		컴퓨터	1,410,00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교육비	0	0
	기타	0	0		회의비	0	16,400
					회계용역비	38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132,000	121,000	
			기타(지급수수료)		155,351	149,977	
소계	11,572,500	11,623,024	소계	4,807,925	3,101,155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4,405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64,770	1,121,435
	법인세환급금	0	2,270		소계	1,224,495	1,181,16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570,761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08,01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150,000
	예수금	412,280	425,830		소계	0	3,328,771
				기타	세금	38,120	85,250
					300	5,300	
소계	412,280	442,505	소계		38,420	90,55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60,000	160,000	학회	학회장소사용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회지판매	0	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발송비	0	0
	학술지계재료	70,000	3,075,000		학술지심사료	0	810,000
	저작권료	0	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101,500	0
	소계	230,000	3,235,000		소계	101,500	810,00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154,740	1,119,79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1,119,795	1,178,300
	전월 이니시스입금	55,000	1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	0
	소계	1,209,740	1,129,795		소계	1,129,795	1,178,300
당월 수입액		13,424,520	16,430,324	당월 지출액		12,802,135	15,189,936
전월 이월액		39,925,425	40,547,810	차월 이월액 (잔액)		40,547,810	41,788,198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2년 5월)

3천 김성근,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일,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수, 전영성,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능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영,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국, 김용성,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연,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중원,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나영진, 남선우, 노순석, 노승욱,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근호,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원근, 박원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생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규철,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도, 양혜영, 양희석, 엄준용, 연혜민, 엄동한, 오민웅,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상찬,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희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노운, 이다나일,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이,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우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창우,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영미, 임일택,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하,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윤조,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이레, 정재성,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국, 조승호,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화,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성, 김인수, 김정옥,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박은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진, 이기서, 이시영, 이연우, 이진희, 장인석, 정대용,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류진호,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서신철,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은실,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준용,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오,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국경자, 김민선, 김옥, 서우경, 손정우, 송은신, 송충철, 송훈, 심상윤, 이경희, 정문선, 정희정, 한경은, 7만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이원삼, 정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김중걸, 김주경, 박문식, 박희규, 윤광식, 조성봉, 30만 김지원,

계 8,382,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제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50,000원

전체 11,732,500원

회원후원

(2022년 6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일,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수, 전영성,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능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영,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국, 김용성,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연,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중원,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나영진, 남선우, 노순석, 노승욱,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근호,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원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생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규철,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도, 양혜영, 양희석, 엄준용, 연혜민, 엄동한, 오민웅,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대,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상찬,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희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노운, 이다나일,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이,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우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창우,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하,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윤조,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이레, 정재성,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국, 조승호,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홍구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화,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성, 김인수, 김정옥,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박은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미, 이진, 이기서, 이수형, 이연우, 장인석, 정대용,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류진호,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창민,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은실, 장지현희,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오,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윤식, 6만 박선자, 박종국, 송충철, 이근호, 7만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정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박문식, 석준준, 유중현, 장민호, 50만 홍숙희, 100만 정희영,

계 8,681,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제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100,000원

전체 11,781,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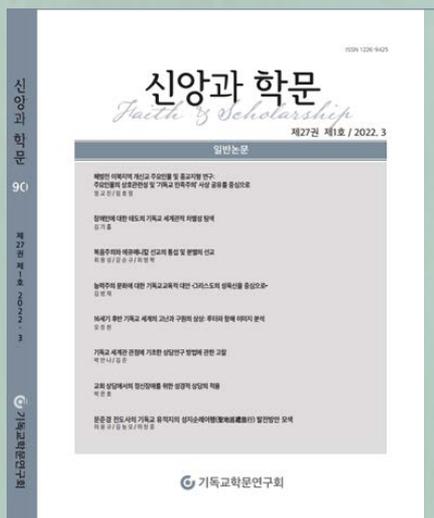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과 학문>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 202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un@daum.net(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